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10월 27일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 26(월) 20:3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10.26.(월)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
담당과장	김현철 과장(044-203-4290)	담당자	신서현 사무관(044-203-4292)

산업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 30개 주요 철강생산국, 글로벌 공급과잉 현황 점검 및 공급과잉 해소에 관한 2020년 장관급 보고서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장관급 화상회의**(10.26(월) 20:30~23:00)에 참석, **EU와 함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 GFSEC :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 이번 회의에는 **EU 집행위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 미국 USTR의 로버트 라이사이저 대표** 등 30개 주요 철강생산국 장관급 인사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며,

○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에드윈 바송 사무총장** 등 글로벌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개요 >

- **(출범)** '16.9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6.12.16일 공식 출범
- **(대상)** G20 국가 및 관심있는 OECD 회원국
  * 대상 국가 중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는 금년 회의부터 참여 중단
- **(임무)** ① 회원국 간 철강 공급과잉 이슈에 대한 효과적 소통, 정보공유, 협력 증진
  ②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기능 강화 및 설비능력 조정 촉진

□ 이번 회의는 2부로 구분하여, ▵**1부**에서는 **세계 각 지역·국가의 철강 협·단체*를 초청**하여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철강산업의 위상 및 중요성, 최근 글로벌 철강산업 현황** 등을 논의하고, ▵**2부**는 **정부 대표 간 비공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 한국철강협회(전우식 전무 등), 미국(AISI), 유럽(EUROFER), 일본(JISF), 러시아(RSA), 브라질(BSI), 멕시코(CANACERO), 캐나다(CSPA) 등 참석

○ **철강 협·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글로벌 철강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주요 철강생산국 정부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지지**하며, **각국 정부가 앞으로도 포럼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 세계 17개 철강 협·단체(한국철강협회 포함)는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을 지지하며, 관련 노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발표(10.22)

□ **강경성 실장**은 ①한국은 세계 제6위 철강생산국*으로서 **최근 글로벌 철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 2019년 국가별 조강생산능력(백만톤, 세계철강협회) : ① 중국 996, ② 인도 111, ③ 일본 99, ④ 미국 88, ⑤ 러시아 72, ⑥ 한국 71 등

○ ②**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 글로벌 공급과잉(백만톤) : ('16) 779 → ('17) 644 → ('18) 547 → ('19) 519 → ('20^{F}) 606

○ ③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를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세계 경제와 철강산업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을 통한 주요 철강생산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 및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개요

※ 2020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장관급 보고서 및 장관선언문은 회의 종료 후 별도 배포, 포럼 홈페이지인 www.steelforum.org에도 공개 예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신서현 사무관(☎ 044-203-42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개요**

□ **(출범) '16년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16.9) 합의*에 따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6.12.16일 출범**

* '16년 G20 정상선언문 31문단 : (...) 우리는 철강 및 여타 산업에서의 공급과잉이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임을 인지한다. (...) 이를 위해 우리는 G20과 관심있는 OECD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OECD의 협조를 받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형성을 통해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

□ **(대상) G20 국가 및 관심있는 OECD 회원국**

* 2020년 참여 국가 (총 30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EU,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대상 국가 중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는 금년 회의부터 참여 중단

□ **(임무)** ① 회원국 간 공급과잉에 대한 **효과적 소통, 정보공유, 협력 증진**
②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기능 강화, 설비능력 조정 촉진**

□ **(의장단) 매년 새로 구성**하되 **당해연도 G20 의장국은 당연직**이며, **운영위원회* 국가 중 2개국**을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운영위원회 : 당해연도 G20 의장국 및 8대 주요 철강 생산국으로 구성 원칙
('20년 운영위 : 한국, EU, 미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터키)

※ 2020년 G20 의장국인 사우디의 포럼 탈퇴로, 한국과 EU가 공동의장국 수임

□ **(회의) 1년에 최소 2회 이상** 실무급 및 고위급 회의를 개최

* '20년에는 실무급 화상회의 4회(6월, 7월, 9월, 10월) 및 장관급 화상회의 1회 개최